

신라고도 경주의 종족음악학적 민요집에  
주목하자

- 김성혜·정서은 엮음. 『경주민요』.  
경주: 경주문화원, 2017 -

송 방 송

1. 머리말: 이 서평의 동기와 배경 및 방향
2. 김성혜·정서은, 두 음악학자의 약력과 연구실적
3. 『경주민요』의 내용 소개 및 독창성 점검
4. 이 민요집의 찾아보기에서 발견되는 아쉬운 점들
5. 맺는말: 두 음악학자의 값진 연구성과에 주목하자

## 1. 머리말: 이 서평의 동기와 배경 및 방향

『성경』에 나오는 밀알의 교훈을 우리 모두가 기억한다. 말하자면,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열매를 맺고, 썩지 않으면 한 알이 그대로 있게 된다는 교훈 말이다. 이 교훈은 마치 촛불이 어둠을 몰아내기 위하여 불타야 하는 촛불 교훈에 비교할 수 있다. 밀알 하나가 썩어야 열매를 맺듯이 초가 불타서 사라질 때, 그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이치가 바로 촛불 교훈인 탓이다.

한국음악학(Korean musicology)의 발전을 위해 썩는 밀알, 또는 불타는 촛불의 사명감(使命感)에 남달리 투철한 두 젊은 음악학자가 근래 값진 학술자료집을 출간하였다. 값진 학술자료집이란 경주문화원(慶州文化院)에서 출간한 『경주민요』이다. 이 민요집의 출간으로 인하여 조용하던 우리 음악학계의 잔잔한 호수에 신선한 충격의 물결이 일었다. 이 서평의 제목을 “신라고도 경주의 종족음악학적 민요집에 주목하자” 라고 붙인 까닭이 이러한 사연에 기인한다.

이처럼 필자의 이목을 사로잡은 『경주민요』의 공저자는 모두 경상북도에서 활동하고 있다. 밝히건대, 공저자의 두 음악학자는 경주에 사는 김성혜(金聖惠) 박사 및 대구 거주인 정서은(鄭譚恩) 예비박사이다. 『경주민요』에 특별히 주목한 이유는 이 서평자가 두 젊은 음악학자와 맺은 남다른 사제지간(師弟之間)의 인연 때문이었다.

2018년 개띠의 무술년(戊戌年)을 맞아 새해선물로 보낸 『경주민요』를 받았을 때, 이 서평자는 제자를 양성한 보람의 맛을 다시 한 번 실감하였다. 김성혜 박사는 영남대학교 재직시절(1980~1998)에 필자와 사제지간의 인연을 맺었다. 그리고 정서은 예비박사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재직 때(1998~2008) 인연을 맺은 제자이다. 두 제자는 필자가 정년퇴임한 후 못 다한 스승의 뜻을 계승하여 훌륭한 학술자료집인 『경주민요』를 출간했으니, 어찌 주목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바로 그런 인연과 연구 결실은

스승의 큰 보람을 만끽하게 만든 원천이자 근거였다.

한국음악학의 종족음악학(種族音樂學: ethnomusicology) 분야에서 이루어지 못한 스승의 뜻을 계승한 두 제자가 필자를 기억하고 보낸 새해선물에게 대하여 학술적 대화를 나누고 싶었다. 왜냐하면 서평을 통해서 제자와 나누는 학술적 대화는 언제나 그랬듯이 본인의 보람이자 행복의 원천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필자를 기억해준 제자의 성의에 대한 스승의 답례가 이 서평이기도 하다. 따라서 두 제자에게 스승의 감사함을 전하고 싶어서 필자는 그들의 학술연구서에 대하여 서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서평의 내용은 크게 세 갈래로 구성될 것이다. 첫째 갈래에서는 두 젊은 음악학자의 약력 소개와 더불어 그들이 언제 무슨 단행본을 어디서 출간했고, 어떤 논문을 어느 학술지에 발표했는가 관련 연구실적을 언급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경주와 대구라는 지방에 살고 있음으로 인하여 두 음악학자가 우리음악학계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다.

둘째 갈래에서는 종족음악학 분야에서 강조하는 현장조사(field research)의 연구방법에 따른 이 민요집을 학술적 관점에서 조명하고자 한다. 그렇게 하려는 이유는 다른 연구자의 것과 비교하여 『경주민요』의 독특한 특징, 곧 독창성(獨創性: originality)이 무엇인지를 음악학계에 드러내고 싶었던 탓이다.

셋째 갈래에서는 독창성 이외 국제음악학술계에서 요구하는 학술연구서의 논리성(論理性: logicity), 정확성(正確性: accuracy), 일관성(一貫性: consistency), 그리고 검증성(檢證性: verification) 등의 관점에서 『경주민요』의 찾아보기를 조명할 것이다. 이렇게 검토했을 때 무엇이 아쉬운 점인가? 달리 말해서, 학술적으로 보완됐으면 좋겠다는 옥의 티는 없는지를 『경주민요』의 찾아보기에서 점검하기 위해서이다.

한국음악학의 발전은 학술적 비평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이 서평자는 믿고 있다. 따라서 제자의 연구업적이라고 칭찬 일변도의 주례사식 서평이

아니라, 개선해야 할 문제를 지적하는 논문식 서평(review essay)을 작성하려고 마음먹었다. 스승으로서 두 제자에게 이른바 ‘사랑의 채찍질’이라는 명분을 앞세우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 탓이다.

## 2. 김성혜·정서은, 두 음악학자의 약력과 연구실적

경북대학교 예술대의 음악학과에서 작곡을 전공한 후 영남대학교 대학원 시절(1988~1990)에 이 서평자와 함께 공부한 결과, 김성혜 박사는 1990년 석사학위<sup>1)</sup>를 받았다. 그 후 부산 동아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했을 때(2003~2005), 조선우(趙善宇) 교수의 지도 아래 2005년 박사학위<sup>2)</sup>를 취득하였다.

현재 경주문화원의 부원장 및 경상북도·경상남도·대구광역시 문화재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는 김성혜 박사는 아래에 제시한 열 권의 단행본(공저서 포함) 및 70여 편의 학술논문<sup>3)</sup>과 2편의 번역, 그리고 2편의 서평과 10여 편의 연구자료를 발표하였다. 제한된 지면 때문에 논문을 비롯한 다른 연구성과를 제외시키고, 단행본 및 역서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 1) 金聖惠, “朝鮮聲樂研究會의 音樂史學的 研究,” 석사학위논문, (慶山: 嶺南大學校, 1990). 이 논문은 『韓國音樂學論集』(慶山: 韓國音樂史學會, 1990), 제1집, 306-348에 복간됨.
  - 2) 金聖惠, “三國時代 新羅音樂文化史 研究,” 박사학위논문, (釜山: 東亞大學校, 2005). 이 박사논문이 『新羅音樂史研究』(서울: 민속원, 2006)로 출간됐을 때, 2007년 그 연구서는 大韓民國學術院의 우수도서로 선정됨.
  - 3) 논문을 발표한 학술지는 『韓國音樂史學報』(16회)·『음악과 민족』(11회)·『慶州文化』(7회)·『韓國學報』(4회)·『慶州文化論叢』(4회)·『韓國音樂研究』(4회)·『남북문화예술연구』(2회)가 있다. 1회 발표한 학술지로는 『音·樂·學』·『음악과 문화』·『震檀學報』·『韓國學論集』·『향토문화』·『신라문화』·『韓國古代史研究』·『경주예술』·『國樂院論文集』·『韓國舞蹈史學』이 있다. 이와 더불어 『韶巖權五聖博士華甲紀念 音樂學論叢』·『晩堂李惠求百壽紀念 音樂學論叢』 등에도 기고함.

저서로는 『韓國音樂關聯學位論文總目』(1998), 『新羅音樂史研究』(2006), 『新羅土偶 속의 음악과 춤』(2009), 『三國時代音樂史研究』(2009), 『도상을 통해본 통일신라음악연구』(2016), 이상 다섯 권이 있다. 그리고 공저물은 송방송(宋芳松)·고정운(高正閏)과의 『韓國音樂學論著解題 II』(2003), 송방송과의 『韓國音樂學論著解題 III』(2003) 및 『韓國音樂學論著解題 IV』(2006), 정서은과의 『경주민요』(2017), 이상 네 권이다. 또한 김홍련(金紅蓮)과의 『그림으로 보는 중국음악사』(2010)라는 공역서가 있다.

이러한 단행본들 중 『韓國音樂學論著解題 II』(2003), 『韓國音樂學論著解題 III』(2003), 『新羅音樂史研究』(2006), 이상 세 권은 영광스럽게도 대한민국학술원(大韓民國學術院)의 우수도서로 선정되었다. 그런가 하면 『新羅土偶 속의 음악과 춤』(2009)은 문화체육관광부(文化體育觀光部)의 우수도서로 선정되는 영광을 누린 연구서이다.

1998년 경북대학교 예술대의 음악학과에서 작곡 전공의 학사학위를 받은 정서은 예비박사는 2003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2000~2003)에서 예술전문사(석사)학위(4)를 취득하였다. 그 후 한국학중앙연구원(韓國學中央研究院: 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한국학대학원(2006~2011)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고, 현재 경상북도 민요를 주제로 박사학위청구논문을 준비하는 중으로 알고 있다.

현재 경북대학교 예술대 강사 및 경상북도·대구광역시 문화재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정서은 예비박사의 공저는 세 권이다. 밝히건대, 『유성기음반으로 보는 남도잡가와 민요』(2007), 『민요와 소리꾼의 세계』(2014), 『경상남도 김해 삼정건립치기』(2017)가 그것이다. 한국음악사학회(韓國音樂史學會)의 『韓國音樂史學報』(2003)에 발표한 “일제강점기 신민요의 음악사학적 접근: 작곡자 이면상을 중심으로”를 비롯해 『韓國學論集』 등의 학술지에 발표한 5편의 논문이 있다.

4) 鄭誦恩의 예술전문사(석)논문은 “日帝強占期 新民謠의 音樂學的 考察,” 예술전문사 학위논문 (서울: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2003)임.

### 3. 『경주민요』의 내용 소개 및 독창성 점검

『경주민요』의 내용이 무슨 문헌 및 어떤 현장조사자료에 의거했고, 또한 언제 녹음한 채집자료를 근거로 어떻게 서술됐는지에 대한 설명은 엮은이의 머리말에 분명히 언급되었다. 그러므로 아래에 인용한 후 그 내막을 점검하도록 하자.

<인용 1>

『경주민요』에는 1930년대 수집된 자료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경주민요를 담았다. 특히 한국학중앙연구원(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1970년대 조사한 『한국구비문학대계』의 경주 민요 자료는 이번 『경주민요』 책자의 CD를 만드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1990년대 녹음된 『MBC한국민요대전』 자료와 1960년대 녹음되어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새롭게 제작한 『경상도민요』 자료 등은 경주민요의 약 40~60년 전 민요 전승 상황을 고스란히 전해준다. 그리고 1990년대에 녹음된 지역 소리꾼 최이범 어르신에 의한 소리자료와 최근 경주향토민요경창대회 출연자들의 소리는 경주 지역민들의 노력에 의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그 외 『경주군』(1934, 국역본 2008)과 『경주풍물지리지』(2006)의 사설도 부록으로 실어 음원이 없더라도 사설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8-9쪽)

『경주민요』에 정리한 민요의 음원(音源) 대부분은 1970년대의 『한국구비문학대계』(1980) 및 1960년대의 『경상도민요』와 1990년대의 『MBC한국민요대전』(1995)에 의거했다고 서술하였다. 그리고 1990년대에 최이범이 노래한 민요 및 최근 경주향토민요경창대회 때 출연자들이 부른 노래를 녹음한 민요가 이 민요집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음을 언급하였다. 『경주민요』에 부록한 민요사설은 1930년대 『경주군』 및 『경주풍물지리지』에서 옮겼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민요집의 참고문헌을 보면, <인용 1>에 언급하지 않은 임석재 (任皙宰) 편저의 『임석재 채록 한국구연민요』(1997) 및 『임석재 채록 한국구연민요자료집』(2004)을 공저자가 참고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경주 민요』에는 1930년대 수집된 자료에서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경주민요가 수록됐음을 머리말에서 확인하였다.

이 민요집의 목차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되었다. 첫째 부분은 현재 경주시에 편입된 열 지역의 읍·면 민요를 정리한 것이다. 그리고 둘째 부분의 부록에는 1930년대 『경주군』 및 『경주풍물지리지』 소재의 민요 및 동요 사설을 포함시켰다.

첫째 부분은 1장 경주시(慶州市), 2장 감포읍(甘浦邑), 3장 건천읍(乾川邑), 4장 안강읍(安康邑), 5장 외동읍(外東邑), 6장 산내면(山內面), 7장 양남면(陽南面), 8장 양북면(陽北面), 9장 천북면(川北面), 10장 현곡면(見谷面), 이상 열 지역의 시·읍·면 민요로 구성되었다.

첫째 부분의 10장을 정리한 서술 내용의 공통적 틀거리는 먼저 각 읍 및 면의 개관, 그리고 그 다음으로 민요의 5선보와 노래사설로 구분하였다. 1장 경주시의 민요는 17곡, 2장 감포읍은 5곡, 3장 건천읍은 6곡, 4장 안강읍은 42곡, 5장 외동읍은 85곡, 6장 산내면은 15곡, 7장 양남면은 1곡, 8장 양북면은 3곡, 9장 천북면은 1곡, 10장 현곡면은 36곡, 이상 총 211곡의 사설을 첫째 부분에 포함시켰다.

경주민요 211곡의 학술정보는 다음 두 쪽의 <인용 2>부터 <인용 4>까지 여러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달리 설명하자면, 각 민요의 학술정보는 곡명, CD음반의 곡 차례, 노래의 길이, 조사일자, 제보자, 조사자, 5선보의 창자, 채보자의 기술 등의 학술정보 다음에 민요사설을 기록하였다. 이렇게 기술한 학술정보의 틀거리에 대한 평가는 아래에서 거론될 것이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총 211곡의 경주민요 중에서 5선보로 채보한 민요는 아래의 [표 1]에 정리되었다. 열 지역의 민요와 관련된 학술정보는 지역명, 쪽수, CD음반의

번호, 곡명, 제보자, 조사자, 채보자, CD음반의 녹음일자 등이다. 이 가운데 곡명만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밝히건대, 경주시의 민요 6곡(동그랑땡, 보리타작소리, 경주 다리담방구타령, 모내기노래, 모심기소리, 성주풀이), 감포읍의 1곡(각설이타령), 건천읍의 3곡(이노래, 대보름놀이, 비), 안강읍의 6곡(달노래, 상여소리, 남자방아타령, 논매는소리, 모찌는소리, 보리타작 도리깨소리), 외동읍의 10곡(담방귀타령, 등노래, 방아타령, 베틀노래, 산재, 애기 어르는소리, 주연가, 장금이타령, 조왕가, 치마노래), 산내면의 3곡(아이 어르는 소리, 새는새는, 황새), 양남면의 1곡(시집살이노래), 양북면의 2곡(모노래, 애기 어르는 소리), 천북면의 1곡(모심는소리),

(표 1) 5선보로 채보된 경주민요의 학술정보 일람표

지역명	쪽수	CD번호	노래곡명	제보자	조사자	채보자	녹음 연월일
경주시 (慶州市)	28쪽	CD 001	동그랑땡(새타령)	이숙자	미상	정서은	1967~1968
	30쪽	CD 002	보리타작소리	서기선	미상	정서은	1967~1968
	32쪽	CD 003	경주 다리담방구타령	김분이	임석재	이정란	1973. 11. 6
	38쪽	CD 004	모내기노래	정옥천	조동일	정서은	1979. 12. 1
	43쪽	CD 008	모심기소리	김종희	김성혜	정서은	2017. 11. 10
	53쪽	CD 012	성주풀이 2	이상철	김성혜	정서은	2017. 11. 15
감포읍 (甘浦邑)	68쪽	CD 016	각설이타령	이분이	임재해	정서은	1997. 8. 16
건천읍 (乾川邑)	82쪽	CD 021	이노래	박병련	MBC팀	정서은	1993. 2. 5
	84쪽	CD 022	대보름놀이 1	서원준	MBC팀	정서은	1994. 12. 20
	86쪽	CD 025	비	황연분	MBC팀	정서은	1994. 12. 20
안강읍 (安康邑)	98쪽	CD 028	달노래	김근이	조동일	정서은	1979. 5. 19
	113쪽	CD 033	상여소리	진석일	임재해	정서은	1979. 5. 20
	125쪽	CD 040	남자 방아타령	최이범	김성혜	김성혜	1997. 12. 16
	128쪽	CD 041	논매는소리	최이범	김성혜	김성혜	1997. 11. 24

지역명	쪽수	CD번호	노래곡명	제보자	조사자	채보자	녹음 연월일
	141쪽	CD 046	모찌는소리	최이범	김성혜	김성혜	1997. 11. 24
	147쪽	CD 048	보리타작 도리깨소리	최이범	김성혜	김성혜	1997. 11. 24
외동읍 (外東邑)	220쪽	CD 076	담방귀타령 (진주낭군)	허수선	임재해	정서은	1979. 4. 6
	225쪽	CD 078	등노래	손순조	임재해	정서은	1979. 4. 8
	253쪽	CD 094	방아타령	허수선	임재해	정서은	1979. 4. 9
	267쪽	CD 099	베틀노래 5	허수선	임재해	정서은	1979. 4. 6
	274쪽	CD 103	산재	손순조	임재해	정서은	1979. 4. 8
	307쪽	CD 112	애기 어르는 소리 3	허수선	임재해	정서은	1979. 4. 6
	318쪽	CD 118	주연가	임철순	임재해	정서은	1979. 4. 7
	339쪽	CD 124	장금이타령	허수선	임재해	정서은	1979. 4. 8
	346쪽	CD 128	조왕가(쾌지나칭칭)	김수만	임재해	정서은	1979. 4. 7
	350쪽	CD 129	치마노래	김혜순	임재해	정서은	1979. 4. 6
산내면 (山內面)	373쪽	CD 146	아이 어르는 소리 (풀무소리·불매소리)	손선례	MBC팀	정서은	1993. 2. 5
	378쪽	CD 151	새는새는	김태조	MBC팀	정서은	1993. 2. 5
	381쪽	CD 156	황새	이달근	MBC팀	정서은	1993. 2. 5
양남면 (陽南面)	388쪽	CD 157	시집살이노래	이문순	MBC팀	정서은	1993. 2. 3
양북면 (陽北面)	396쪽	CD 158	모노래	주손남	임재해	정서은	1979. 8. 16
	397쪽	CD 159	애기 어르는 노래	주손남	임재해	정서은	1979. 8. 16
천북면 (川北面)	406쪽	CD 161	모심는소리	황만호	MBC팀	정서은	1993. 2. 4
현곡면 (見谷面)	422쪽	CD 168	등그랑땡	이선재	조동일	정서은	1979. 2. 25
	433쪽	CD 178	보리타작노래	한치문	조동일	정서은	1979. 2. 26
	438쪽	CD 181	시집살이	이선재	조동일	정서은	1979. 2. 25
	439쪽	CD 182	쌍가락지노래	이선재	조동일	정서은	1979. 2. 25
	447쪽	CD 189	지신밧기 1	이원욱	조동일	정서은	1979. 2. 23

그리고 현곡면의 5곡(동그랑땡, 보리타작노래, 시집살이, 쌍가락지노래, 지신났기) 이상 총 38곡이다.

5선보로 채보한 38곡은 음악학적 연구를 위한 기본적 학술정보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주민요의 그런 학술정보는 이 민요집의 백미이자 노른자, 이른바 첫째 장점 또는 특징, 곧 독창성을 입증하는 증거로 꼽혀 마땅하다.

둘째 부분은 부록 1: 김기조 역, 『국역 경주군』의 민요와 동요, 그리고 부록 2: 김기문 편저, 『경주풍물지리지』 민요와 동요, 이상 두 부록으로 구성되었다. 부록 1의 『국역 경주군』에는 민요 19곡 및 동요 19곡의 사설을 기재하였다. 그리고 부록 2의 『경주풍물지리지』에는 민요 92곡 및 동요 58곡의 가사가 수록되었다.

남의 것을 모방하지 않고 어느 누가 스스로의 힘으로 어떤 무엇을 비로소 생각해 내거나 만들었을 때, 새로운 그 무엇을 우리는 독창적이라고 인정한다. 위의 [표 1]에 정리한 경주민요 38곡 중 37곡의 학술정보는 정서는 예비박사 및 김성혜 박사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처음으로 채보한 5선보이다. 이런 5선보는 『경주민요』의 첫째 독창성이 되는 밑바탕이다. 아래 단락에서 좀더 자세히 기론해보자.

[표 1]의 조사자 란에 나오는 임석재(任皙宰)·조동일(趙東一)·임재해(林在海) 및 MBC조사팀, 모두는 여러 민요를 채집하여 음원 및 가사를 정리한 조사자들이었다. 그 중 한 사람이라도 5선보로 채보할 수 있는 음악학자는 없었고, 모두가 국문학자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표 1]의 채보자란에 적혔듯이, 경주민요 38곡을 처음에 5선보로 채보한 정서는·김성혜 및 이정란(李靜蘭), 이상 세 음악학자에 주목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경주민요』의 독창적 백미이자 노른자, 곧 첫째 독창성을 보여주는 증거로 경주민요 38곡의 5선보를 지적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둘째 독창성은 이런 사실에 있다. 분명히 지적하건대, 경주민요 197곡의 음원을 선정하여 제작한 CD음반을 『경주민요』의 뒤에 첨부했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CD음반의 197곡 중에서 중요한 민요 38곡을 5선보로 채보한 목

록이 앞쪽의 [표 1]이다.

CD음반을 첨부한 사실을 또 다른 장점이자 둘째 독창성으로 꼽는 까닭은 위은이가 채보한 경주민요 37곡 및 이정란 씨가 채보한 1곡의 5선보를 다른 연구자가 그 CD음반의 음원에 의거하여 학술적으로 검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창성과 더불어 학술연구서에서 중요시하는 검증성(verification)의 견지에서 경주민요의 음원을 조명할 때, 『경주민요』의 CD음반의 음원은 5선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바로 이런 장점이 『경주민요』의 둘째 독창성이라고 꼽는 증거물이다.

아래의 <인용 2>에 제시했듯이 각 민요의 학술정보, 예컨대 곡명, CD음반의 차례, 곡목의 녹음시간, 조사일, 제보자(이름과 출생연도 및 주소), 조사자, 창자의 소리, 채보자를 차례대로 일관성(consistency) 있게 일정한 틀 거리에 넣어 정리하였다. 이렇듯 일관성 있게 민요 관련의 학술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실은 이 민요집의 또 다른 장점이자 셋째 독창성으로 꼽아 마땅한 증거물이다.

셋째 독창성으로 꼽는 이유를 달리 말하자면 이렇다. 일관성의 관점에서 그런 학술정보를 비추어볼 때, 모든 학술정보를 일정한 틀 거리에 일관되게 체계적으로 서술했다는 사실은 종족음악학적 학술자료집의 기본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근거이기 때문이다. 어떤 틀 거리로 무슨 학술정보를 어떻게 정리했는지를 다음의 <인용 2>에 제시한 세 민요의 학술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용 2-1>

**모내기노래 【CD 004】** 3:46      조사일: 1979년 12월 1일

제보자: 안병대(남, 1905년생, 75세) 정옥천(남, 1908년생, 72세)

경주시 성동경로당

조사자: 조동일      소리: 정옥천      채보자: 정서은

<인용 2-2>

**성주풀이 2** 【CD 012】 7:29    조사일: 2017년 11월 15일  
 제보자: 이상철(남, 1944년생, 74세, 경주시 시래동 364-8)-소리  
 장단: 김중희-뽕과리, 이행자-징, 정운순-북, 배영순-장고  
 조사자: 김성혜·정서은    소리: 이상철    채보자: 정서은

<인용 2-3>

**각설이타령** 【CD 016】 0:21    조사일: 1979년 8월 16일  
 제보자: 이분이(여, 1922년생, 58세, 경주시 감포읍 대본 3리 대밀)  
 조사자: 임채해    소리: 이분희    채보자: 정서은

1979년 12월 1일에 채집한 <모내기노래>의 음원은 CD음반의 넷째 곡이고, 녹음시간은 3분 46초이다. 그리고 그 민요의 제보자는 경주 성동경로당 소속의 안병대·정옥천 씨이고, 조사자는 조동일 교수이며, 채보자는 정서은 예비박사라는 학술정보를 일정한 틀거리에 넣어 정리하였다.

<성주풀이>와 <각설이타령>의 학술정보도 역시 <모내기노래>와 같은 틀거리에 넣어 일관적으로 정리하였다. 종족음악학적 학술정보를 이렇듯 일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실을 『경주민요』의 또 다른 장점이자 셋째 독창성으로 꼽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노래 가사의 경우 ‘메기는 소리’와 ‘받는 소리’를 정확하게 구분해 표시해놓은 점도 또한 이 민요집의 다른 특징이자 독창성을 돋보이도록 만드는 요소이다. 아래 <인용 3>의 <남자 방아타령> 및 <눈매는소리> 이상 두 민요를 중심으로 넷째 독창성의 이유를 세부적으로 논의하도록 하자.

<인용 3-1>

**남자 방아타령** 【CD 040】 6:43    조사일: 1997년 12월 16일  
 제보자: 최이범(남, 1922년생, 76세) 경주시 안강읍 안강 3리  
 조사자: 김성혜    소리: 최이범    채보자: 김성혜

<메기는 소리>		<받는 소리>	
방아로다	방아로다	호호호	방아야
혼자찍는	절구방아	호호호	방아야
쿵덕쿵덕	잘찍는다	호호호	방아야 ……(이하 생략)

<인용 3-2>

**논매는소리** 【CD 041】 6:43      조사일: 1997년 11월 24일  
 제보자: 최이범(남, 1922년생, 76세) 경주시 안강읍 안강 3리  
 조사자: 김성혜      소리: 최이범      채보자: 김성혜

<메기는 소리>		<받는 소리>	
매후리야	매후리야	어화둥실	매후리야
이눈을매고	저눈을가자	어화둥실	매후리야
서마지기	논빼미가	어화둥실	매후리야
반달만치	남았구나	어화둥실	매후리야 ……(이하 생략)

<인용 3-1>의 <남자 방아타령> 및 <인용 3-2>의 <논매는 소리>의 ‘메기는 소리’와 ‘받는 소리’의 가사를 읽어볼 때, 한 소절이 네 박자로 구성됐음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자가 민요사설을 체계적으로 기록하였다.

이와 비슷한 사례를 5선보로 채보되지 않은 <인용 4>의 민요 <화전가>, <내방가사>(內房歌辭) <사모곡>(思母曲)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이토록 노래가사의 리듬을 느낄 수 있게 세심하게 기록함으로 인하여 민요사설의 리듬감을 자연스럽게 파악하도록 엮은이가 신경을 썼다. 엮은이의 이런 학술적 자세와 결실이 『경주민요』의 또 다른 특징이자 넷째 독창성으로 꼽는 이유이자 증거이다.

<인용 4-1>

**화전가** 【CD 059】 7:47      조사일: 1997년 12월 16일  
 제보자: 최이범(남, 1922년생, 76세) 경주시 안강읍 안강 3리  
 조사자: 김성혜

불러보자      불러보자      화전가를      불러보자  
 화란춘색      만화방창      때 좋다      벗님네요 ……(이하 생략)

<인용 4-2>

**화전가** 【CD 060】 14:47      조사일: 2017년 11월 10일

제보자: 이태선(여, 1939년생, 79세) 경주시 안강읍 칠평북 1길 19-1

조사자: 김성혜·정서은

사람마다      부모있어      부모은공      모르려만

마음으로      생각할때      하늘같은      그은혜가 ……(이하 생략)

종족음악학적 현장조사 때 조사자가 지켜야 할 학술적 원칙 중의 하나는 제보자의 사설에 나오는 원래의 사투리를 가능하면 그대로 기재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수집한 자료의 신빙성(信憑性) 유지 때문이다. 『경주민요』의 또 다른 장점 중 하나는 제보자의 사설에 나오는 경상도 사투리를 그대로 옮겼다는 사실에 있다. 따라서 경상도 사투리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기재했다는 점은 이 민요집의 학술적 가치를 높여주는 다른 증거이다.

그러나 경상도 사투리의 올바른 이해는 채집자의 보충설명 없이는 불가능할 때가 많다. 이런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민요의 사설에 나오는 경상도 사투리의 낱말을 위은이가 친절하게 풀어서 각주에서 밝혔다는 사실을 이 민요집의 또 다른 장점이자 다섯째 독창성으로 꼽아서 마땅하다. 각 민요의 사설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몇몇 사투리의 사례를 풀이한 각주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최이범 씨가 노래한 “모찌는 소리”의 사설에 나오는 ‘부덕답이’라는 사투리는 ‘습도가 몹시 높은 무더위’라고 친절하게 풀이하였다. 그리고 허수선 씨가 부른 “담방귀타령”(진주남군)의 가사에 나오는 ‘통을더비서’라는 사투리는 ‘통을 뒤져서’로 풀어 주석하였다.<sup>5)</sup>

5) 김성혜·정서은, 『경주민요』 (경주: 경주문화원, 2017), 142의 각주 148 및 221의 각

이태선 씨가 노래한 내방가사 “사모곡”에 나오는 사설 중 ‘어린나로’는 ‘어린 나이로’라고 각주를 달았다. 그리고 손순조 씨가 창한 “산재”의 사설에 나오는 ‘아리택은’이라는 사투리는 ‘아랫턱은’으로 주석하였다.<sup>6)</sup>

또한 임하계 님이 제보한 “베들노래 4”의 사설 중 ‘지아노이’는 ‘지어(제 작하여) 놓으니’라고 주석했으며, 허수선 씨가 부른 “갈가마구노래”(어사 용)의 가사에 나오는 사투리 ‘인자한분’은 ‘이제 한번’이라고 각주에 풀이 하였다.<sup>7)</sup>

위에서 거론한 『경주민요』의 다섯 장점이나 특징, 이른바 독창성을 요약 하면 이렇다. 첫째 독창성은 5선보로 채보한 경주민요 38곡(표 1)에 있고, 둘째는 이 민요집에 수록한 민요 중에서 선정한 197곡의 음원을 담은 CD 음반을 첨부한 사실이다. 또한 셋째 독창성은 일관성 있는 틀거리로 정리한 학술정보의 제공이고, 넷째는 민요사설의 리듬감을 알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한 가사에 있다. 그리고 다섯째 독창성은 민요사설에 나오는 경상도 사투리의 단어를 친절하게 각주에 풀어서 설명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한국음악학의 3세대가 이룩한 값진 학술자료집인 『경주민요』는 음악사학(音樂史學: histo- rical musicology) 분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빈약한 종족음악학 분야의 학술적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리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그렇게 믿는 근거이자 이유는 종족음악학의 연구방법에 의거한 현장조사에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엮은 이 민요집의 상기한 다섯 독창성 때문이다.

주 60참조.

6) 김성혜·정서은, 『경주민요』, 180의 각주 247 및 287의 각주 269참조.

7) 김성혜·정서은, 『경주민요』, 184의 각주 189 및 205의 각주 26참조.

#### 4. 이 민요집의 찾아보기에서 발견되는 아쉬운 점들

후학들의 학술연구서에서 흔히 발견되는 결정적 약점은 우리음악학계에 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색인(index), 곧 찾아보기의 결여(缺如)이다. 국제음악학술계의 규정 및 관례에 의거하건대, 찾아보기의 결여는 후학들이 극복해야 할 우리음악학계의 큰 흠집 중 하나임을 최근의 서평<sup>8)</sup>에서 지적하였다. 그렇게 지적한 이유는 후학들이 한반도의 테두리를 벗어나 글로벌 마인드(global mind)를 갖고 국제무대에 동참해야 함을 깨우치기 위해서였다. 이것은 마치 동네 축구로부터 해방되어 국제축구연맹(FIFA) 주최의 세계축구경기에 출전하도록 채찍질하는 경우와 같다.

한국음악학의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학술연구서의 국제관례를 충실하게 반영시킨 『경주민요』의 찾아보기는 이 민요집의 여섯째 장점으로 꼽아도 무방할 듯싶다. 그러나 엮은이가 정성을 기울여 만든 찾아보기를 꼼꼼하게 점검해본 결과, 아쉬운 점 몇 가지가 이 서평자의 눈에 잡혔다.

이 민요집의 찾아보기는 경주민요의 곡명 및 제보자의 이름을 중심으로 만들어졌음이 분명하였다. 채집한 민요의 곡명과 제보자의 이름이 중요함은 물론이다. 이와 더불어 『경주민요』에 나오는 각 민요의 조사자와 채보자의 이름 역시 중요함에 엮은이가 주목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민요집의 찾아보기에서 조사자와 채보자의 이름을 제외시켰다는 사실을 아쉬운 점, 곧 첫째 옥의 티로 지적한다. 조사자와 채보자의 이름 관련 사례를 앞의 <표 1>에서 예로 들어 좀 더 구체적으로 아쉬운 점을 거론해보자.

<경주 다리담방구타령>의 곡명 및 제보자 김분이 씨의 항목 설정은 물론 중요하다. 그래서 찾아보기에 그 곡명과 제보자의 이름을 항목으로 정리한 것에 이 서평자도 동의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민요의 조사자인 임석

8) 찾아보기의 중요성을 강조한 노재명의 『국악 명인명창 100년 사진집』(2017)에 대한 필자의 서평 “우리 근현대공연예술사의 값진 결실에 주목하자.”는 곧 음악학술지에 발표할 예정임.

재 씨 및 채보자인 이정란 씨도 중요시되어야 마땅하다. 왜냐하면 <경주 다리담방구타령>을 거론할 때, 채보자나 조사자 그리고 채보자 모두가 종족음악학적 연구를 위한 기본적 학술정보인 탓이다.

엮은이가 참고하도록 하기 위하여 앞서 언급한 아쉬운 점을 옆두에 두고 [표 1]에 나오는 조사자와 채보자를 구분해 정리하면, <고침 1-1> 및 <고침 1-2>와 같다.

<고침 1-1> (조사자)

**MBC팀** 82, 84, 86, 373, 378, 381, 388, 406

**김성혜** 43, 53, 125, 128, 141, 147,

**임석재** 32

**임재혜** 68, 113, 220, 225, 253, 267, 274, 307, 318, 339, 347, 350,  
396, 397

**조동일** 38, 98

<고침 1-2> (채보자)

**김성혜** 125, 128, 141, 147

**이정란** 32

**정서은** 28, 30, 38, 43, 53, 68, 82, 84, 86, 98, 113, 125, 220, 225,  
253, 267, 274, 307, 318, 339, 347, 350, 373, 378, 381, 388,  
396, 397, 406, 422, 433, 438, 439, 447

둘째로 아쉬운 점을 거론하기 위하여 <동그랑땡>을 예로 들어보자. <동그랑땡>의 찾아보기에서 발견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해야 한다. 자세히 지적하자면, 이런 것이다.

633쪽의 찾아보기에서 <동그랑땡>의 출처는 25, 27, 28, 413, 414, 422, 이상 여섯 곳이라고 적혔다. [표 1]에 정리한 민요의 학술정보를 참고할 때, 여섯 곳 중에서 5선보로 채보된 <동그랑땡>의 쪽수는 28쪽 뿐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글 속에 나오는 <동그랑땡>의 출처이다.

여기서 아쉽다는 점은 채보된 악보가 나오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 서평자가 아쉽다고 지적하는 옥의 티는 바로 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정확성(accuracy)의 견지에서 옥의 티를 조명할 때, 이렇게 보충하도록 권고한다. 밝히건대, 이런 경우에 25, 27, 28(채보 또는 5선보), 413, 414, 422로 표시하여 구분하라고 말이다.

<경주 다리담방구텡>의 제보자 김분이 씨는 632쪽의 찾아보기에 의거하건대, 25, 27, 32, 34, 37, 이상 다섯 곳에 나온다고 적었다. 다섯 곳을 점검해 본 결과, 5선보와 관련된 김분이 씨의 이름은 [표 1]에 정리됐듯이, 32쪽에만 나온다. 나머지 네 곳에 나오는 김분이 씨는 문장 속에서 출현하는 이름이다. 따라서 정확성의 관점에서 볼 때, 25, 27, 32(소리 또는 5선보), 34, 37로 기록하는 것이 원안임에 얽은이는 주목해야 한다.

이 서평자가 아쉬운 점으로 지적한 것을 수정한 『경주민요』의 찾아보기를 민요의 곡명 및 제보자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고침 2-1> 및 <고침 2-2>와 같다.

<고침 2-1>

각설이타령 64, 65, 68(5선보), 195~197, 202, 501

경주 다리담방구 25, 27, 32(5선보)

동그랑땡 25, 27, 28(5선보), 413, 414, 422

모내기노래 25, 27, 38(5선보), 91, 165, 413, 414, 424~427, 481, 521

보리타작소리 25(5선보), 27, 30

<고침 2-2>

김근이 91, 92, 94, 98(소리), 105

김분이 25, 27, 32(소리), 34, 37

김중희 26, 27, 43(소리), 48, 53, 56

취이범 26, 92, 93, 121~125(소리), 128(소리), 131, 134, 136, 138,  
141(소리), 144, 147(소리), 150~152, 157, 165, 166, 169,  
172, 174, 175, 177

허수선 195, 196, 205~207, 216, 218, 218, 220(소리), 237, 247, 248,  
251, 253(소리), 267(소리), 292, 293, 295, 307(소리), 309,  
339(소리), 343, 356

이 학술서를 엮은이가 재판할 때, 찾아보기에서 눈에 잡힌 몇몇 아쉬운 점을 수정하고 보완하기 바란다. 그렇게 한다면 『경주민요』의 학술적 가치는 한층 높게 평가되리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는 탓이다. 그렇게 믿는 이유는 국제음악학술계에서 요구하는 정확성의 관점에서 조명할지라도, 그런 아쉬운 점은 옥의 티로 지적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5. 맺는말: 두 음악학자의 값진 연구성과에 주목하자

70대에 들어서는 고희(古稀)를 맞이할 때, 이 서평자는 인생의 이런 문제를 골똘히 생각한 적이 있었다. 밝히건대. 신체가 늙어 가는 중에 어떻게 정신적 활력을 유지하면서 삶의 보람과 젊음을 유지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그것이었다. 정신적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젊은 제자들과 학술적 대화를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라는 결론에 드디어 이르렀다. 그리고 보면 이 서평도 노년 인생의 보람과 삶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한 결실인 셈이다.

이 서평자의 스승이신 만당(晩堂) 이해구(李惠求 1909-2010) 및 운초(云初) 장사훈(張師勛 1917-1992) 두 박사님, 곧 한국음악학의 1세대가 후학들에게 바라는 것은 학문적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발전시키라는 유훈(遺訓)이었다. 이런 유훈을 상기하며, 2세대인 필자는 『경주민요』의 엮은이를 비롯한 차세대들에게 글로벌 마인드와 더불어 자기연구서를 국제학술올림픽에 출품하는 목표를 가지라고 강력히 권고하였다.

그렇게 권고한 이유는 한국음악학이 하루라도 빨리 『장자』의 춘추편(春

秋篇)에 나오는 ‘정중지와’(井中之蛙), 곧 ‘우물안의 개구리’의 신세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이 서평자의 희망 때문이었다. 달리 말하자면, 국제축구연맹주관의 축구경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선수가 그 국제 경기규칙을 따라야 마땅하듯이 말이다. 위은이를 비롯한 후학들에게 연구서의 출간목표를 국제음악학술올림픽의 출품에 두라고 권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시간 축의 통시적 관점(diachronic standpoint)에서 연구하는 음악사학(historical musicology) 분야는 필자를 비롯한 여러 후학들이 활성화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현장조사라는 현재의 공간축 중심의 공시적 견지(synchronic point of view)에서 접근하는 종족음악학(ethnomusicology) 분야는 음악사학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쳐졌다고 생각한다.

종족음악학에서 강조하는 현장조사방법에 의거하여 연구한 값진 학술자료집이 『경주민요』라고 본문에서 강조하였다. 이 민요집의 찾아보기에서 옥의 티라고 지적한 아쉬운 점을 ‘사랑의 매’라는 명분 아래 지적하기를 하였다. 그러나 『경주민요』의 뛰어난 독창성이 그런 아쉬운 점들을 모두 덮어버리고도 남는다고 평가한다. 그렇게 평가하는 까닭은 다른 연구서에서 찾기 어려운 체계적 접근방법에 의거한 경주민요 관련 학술자료집이 음악사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한 종족음악학 분야의 연구에 좋은 본보기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뛰어난 『경주민요』의 독창성이야말로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하여 전국의 대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 그리고 한국음악학 2, 3세대와 4세대의 서가에 이 학술자료집을 구비하도록 추천하는 근거이자 이유이다. “두 음악학자의 값진 연구성과에 주목하자”라고 맺음말에 부제를 붙인 까닭도 『경주민요』의 뛰어난 독창성 탓이었다.

앞으로도 『경주민요』처럼 훌륭한 연구결실을 김성혜 박사 및 정서은 예비박사가 지속적으로 발표하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서평을 마무리한다.

“김성혜 박사 및 정서은 예비박사! 파이팅!”